

금주의 칼럼

걱정과 근심

미국 콜로라도주 한 봉우리에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400여 년간 열네 번이나 벼락을 맞아도 쓰러지지 않았으며,
수많은 눈사태와 폭풍우를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나무가 쓰러진 까닭은 바로 딱정벌레가 나무 속을 파먹어 버렸기 때문이
라고 합니다.
오랜 세월에도 시들지 않고 폭풍과 벼락을 견뎌온 그 거목이
손가락으로 문지르면 죽일 수 있는 작은 벌레들에게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이 거목처럼 인생의 폭풍우와 눈사태와 벼락은 이겨내면서도 '근심(審)'이라는
벌레에게 우리의 심장을 갉아 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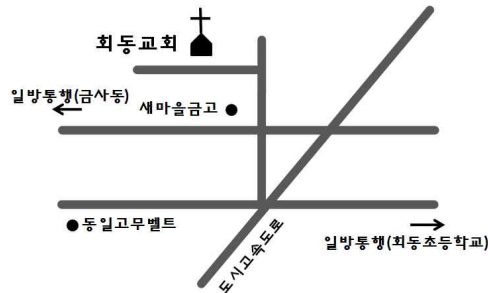
--데일 카네기의 <근심이며 안녕>이라는 책의 내용에서 --

기도와 물질로 돕는 교회

- 타지키스탄 (최**-서** 선교부)
- 네팔선교(차**-2남전도회)
- 동부산노회: 미자립교회 지원
- 국제기아대책(동래지역-선교부)
- 부루키나파소(김** 3여전도회)
- (선교부,본회계)
- 캄보디아 (최** 살롬회)
- 한국대학생 선교회(박*지-4여전도)
- 삼척소명교회(고진용, 권사회)
- 교경협의회(금정경찰서,선교부)
- 인도네시아(배** 2여전도회)
- 부산신학교(교단신학교,기도후원)
- 총신대학교 (박성규. 선교부)
- 인도네시아(조** 1남전도회)
- 금정구 기독교 연합회(금정지역)

교회 집회 안내

예 배 시 간	집 회 시 간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삼 일 기도 회 오후 7:30
오후 2:00	유 * 초 등 부 주일 9:00
오후 7:30	중 고 등 부 주일 9:00
새 벽 기도 회 매일 5:30	청 년 부 주일 12:45



대한예수교장로회 회동교회

2026. 2 . 8 / 제 48-06
2026 비전 :
" 내가 기도하노라 " (빌1:9)
since 1979.

2시 :배영조목사

찬양 [1: 45-2:10]

오전 11: 00 / 인도 : 목사

입 레	입례송 / 기원
표 어 제 창	" 내가 기도하노라 " (1:9)
찬 송	5장
교 독 문	5문 (시편 8편)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찬 송	304 장
기 도	강병욱 장로
성 경 교 독	요한복음 1:17-18
찬 양	할렐루야 찬양대
말 씀	율법과 은혜
찬송*봉헌	295장 / 봉헌 / 봉헌기도
인 사	최강주*서현아 선교사
광고*교제	교회소식 / 성도의 교제
찬 송	46장 (1절)
축 도	인도자

○ 표시는 일어섭니다

입 레: 작은 십자가 찬양
찬 송: /
기 도: 김장우집사 (: 김은성집사)
성 경: 시편 60: 9-12
특 송:
말 씀: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2)
기 도: 합심기도(2)
광 고: 인도자
축 도: 인도자

수요기도회 오후 7:30

: 신명기 강해 / 인도: 배영조 목사

새벽기도회 새벽 5시30분

말씀: 누가복음 강해 / 인도: 배영조목사
[토 ~ 월 은 자유롭게 합니다] 1층 교육관

- 본회계 부산은행 073-01-033878-7 회동교회
- 선교 부산은행 112-2335-8311-00 최은경
- 건축 새마을금고 9002-1699-9318-3 회동교회

2 월 봉사 안내

- 담임목사: 배 영 조
- 장 로: 오정수 강병욱 최진수
- 선교사: 최강주 서현아
- 전도사: 허춘성 박옥주
- 지 회: 김태호
- 반 주: 김정숙 부: 최문호

차 량 () 김수안 오세영 / (오후) 오세영(온천) 오정수(재송)	안 내 / 식 당 이순점 / (주방) 이순점 이은심 / (청소) 강형순	1주(1일)	2주(8일)	3주(15일)	4주(22일)
중 식 봉 사	7,8구역	9,10구역	1,2 구역	3,4구역	
기 도	주일에배	오정수	강병욱	최진수	오정수
	주일오후	김종섭	김장우	추석	김은성
	삼 일 밤	합심기도			

46263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천로 5번길 6 (회동동) Tel. 522-8771, 522-3708(목사관) Fax. 525-7191

홈페이지: <http://hoedongch.org/index.html> [네이버에서 "회동교회"]

교회 소식

-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시고 사무실에서 목사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전에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 경배와찬양: 오늘 오후 예배는 경배와 찬양의 시간으로 드립니다.
-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회계부 김종섭 집사에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창립행사: 3월8일(주일) 창립기념행사, 4여전도회 주관
방식: 기관별대항 / 찬양과 율동
- 구제명단: 설날 명절을 앞두고 각 구역장은 구제 명단을 교역자에게 제출 바랍니다. 2월 8일까지. 선정 및 시행은 구제부에서 진행합니다.
- 요람: 금년도 교회 요람이 나왔습니다. 한 가정에 한 부씩 가져가세요
- 인사: 최강주*서현아 선교사, 타지키스탄 선교지 출국을 앞두고 오늘 인사 말씀 드립니다 (2월 25일 출국)
- 세미나: 동부산노회 주관 세미나가 2월 9-10일까지 경주에서 있음
- 권사회: 2월 권사 기도회 모임 2월 24일(화) 오전 11시
- 교우소식: 1) 출산: 박상재*배성령 가정, 딸 출산

- * 행사안내: 1) 구역장모임: 2월 마지막 주일
2) 권사기도회: 2월 24일 오전 11시 교육관
3) 전도팀 전도시작: 3월 11일(수)부터 시작함

기도제목

- 1 충성: 직분자들이 더욱 충성스럽게 잘 섬기기 위해
- 2 가정: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을 위해
- 3 질병: 입원중인 성도, 치료중인 성도들을 위해

2 월 행사 안내

* 찬양: 둘째 주	* 노회세미나: 2월 9-10 경주에서 모임
* 선교 및 건축 편성	* 요람발행: 2월 첫 주에 요람 발행
* 추석 구제: 구제부 담당	* 교경합: 2월 중에 총회
* 전도회월례회: 셋째 주일	* 구역장모임: 2월 마지막 주일
* 구역편성: 2026년 구역	* 당회: 2월 마지막 주일
* 추석명절: 2월 16-18일	* 권사기도회: 매달 넷째 주 화요일
* 출국: 최강주*서현아 선교사 출국 (2월25일)	* 새가족부: 세미나실, 점심 후 성경공부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 김미경*조현훈 배성현 이영희 이은심
정경자 최춘은
- ◆**감 사:** 강병옥*박옥주 김복덕 김승하 김은수*김은숙
이영희 허진경 무명
- ◆**선 교:** 김종섭*장은미 박상태 김영숙
- ◆**건 축:** 김난새*이현정 김종섭*장은미 박상태 김영숙

양육,친교 모임

프로그램	모임시간	모임장소
새가족부	주일 오전 12:40	1층 세미나실
구역장모임	주일 (매달 마지막주)	3층 교육관
돌봄교실	주일 오후예배시간	교육관/ 별관
기초교리반	상 . 하반기(문답교육)	1층 세미나실
성경강해	마태, 시편, 신명기	본당
탁구부모임	주일/ 오후예배후	별관

구역 모임 보고

2월 모임

	구역장	모인수	전도	헌금	성경	모인곳
1						
1	이순점				450	
2	강형순				1360	
3	이은심				1100	
4					1635	
5	김경애				980	
2교구						
6	이봉순				430	
7	박광자				895	
8	이현정				1848	
9	전만주				1496	
10	김종섭				270	

생명의 양식

02-2 나중이 더 좋은 가정

룻기 4:13-17

오늘 우리 사회의 위기 중에 최대 위기가 가정의 붕괴입니다. 부정이 드러나서 이혼하는 것 외에 경제문제, 성격의 부조화, 부부 갈등 등으로 인해 깨어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세계 1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가정의 붕괴가 심각한 문제인데 정작 당사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분위기가 오히려 더 가족의 해체를 더 부추기는 분위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병중에 가장 심각한 병입니다.

룻기에 보면 지독하게 불행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흉년을 견디지 못하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나라로 가서 정착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놀라살려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 십 년이란 세월이 잠깐 지나갔고 아들들도 장성하여 결혼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대로 타국에 잘 적응하며 뿌리를 내리는가 싶었는데 갑작스레 가장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 두 아들도 아주 젊은 나이에 다 죽었습니다. 남은 것은 시어머니 나옴미와 며느리 오르바와 룻 이렇게 세 여자뿐이었습니다. 남편들은 다 죽었고, 재산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자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중에 소문에 고향 땅에는 하나님께서 풍년이 들게 하셔서 모두가 잘 산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려서 나옴미와 룻이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칭찬과 사랑을 받게 하십니다.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잃었던 땅을 되찾게 해 주십니다. 아주 존귀한 아들을 주셔서 그를 잘 키워 놀라운 섭리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제 다윗왕의 할아버지인 오벧을 품에 안게 됩니다. 나옴미와 룻의 가정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창대하고 잘 된 가정입니다. 그녀들의 가정은 엄청난 시련을 만나 모든 것을 잃고 절망할 수 밖에 없었고 희망이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했으나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 전반보다 후반이 훨씬 더 좋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